

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내 고향 물살리기' 행사 개최

화곡저수지 일대 환경정화·안전점검 병행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기사입력 2025.04.08 15:17:16 최종수정 2025.04.08 15:17:16



-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직원들이 화곡저수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 농어촌공사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8일 충주시 주덕읍에 위치한 화곡저수지에서 '내 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행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사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농업용수의 수질 보전과 시설물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섰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지 제방 주변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약 350kg을 수거하며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으며, 오염 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수질 개선은 물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행사에서는 재해 대비를 위한 저수지 시설물 및 안전장비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또 수난 구조 장비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및 농업용수 절약 캠페인도 펼쳤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연 1회 수질 방제훈련과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함 설치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오고 있다.

전승민 지사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업용수의 중요성과 저수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보전과 시설 안전 점검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